

경제

경기하강 속 눈덩이 가계부채에 자산가치 하락

한국 장기 불황 늪에 빠지나

성장을 전망 일단 하향...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국경제에도 커지고 있다.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유럽발 부채 디플레 조짐의 영향권에 우리도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7% (작년 12월), 3.5%(지난 4월)에 이어 이달 들어 3.0%로 각각 내렸다. IMF도 4.4%(작년 9월), 3.3%(지난 1월)에 이어...

거래량은 모두 3만7069건으로 작년 6월보다 32.9%나 감소했다. 전체 주택 거래량도 29.3% 줄었다. 정부는 아직 디플레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적 기업 함께 키우자

광주·전남 12개 기관·단체 후원협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후원협약 체결 모습

전남대-SK하이닉스 산학협력 5년 연장

SK하이닉스는 18일 전남대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반도체전문가 육성 과정 'SK하이닉스 트랙'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07년부터 전남대, 경북대, 충북대 등 우수 국립 과정 'SK하이닉스 트랙'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학생 중 2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졸업 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방학 중 인턴십 기회도 제공해 채용까지 이어가고 있다.

불공정 은행약관 대수술

공정위, 36개 조항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은행 약관들이 한꺼번에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1개 시중 은행이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중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다른 은행은 기업고객과 외환거래 과정에서 '거래처의 인감'이 날린 서류청구서가 있으면 누구든지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한다고 강하게 시정 요구를 받았다.

'중계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고객과 거래하면서 은행 편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된다.



초복 삼계탕집 장사진

초복인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삼계탕 전문점에 점심시간을 맞아 복달임을 하러 온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삼계탕 전문점 장사진

서비스업 118개 품목 '중소 적합업종' 지정 검토

소매·음식·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종 118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비스업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계획'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업종업종 우선 검토 대상으로 확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300억원, 상시 종업원수 1000명, 매출액 1000억원 등이 적용된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진입장벽, 확장장제, 사업철수, 사업양도 등 지난해 선정한 82개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현대·기아차 6월 유럽 점유율 6.3%... 사상 최고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유럽에서 역대 최고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1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6월 점유율은 6.3%로, 올 4월의 6.1% 기록을 넘어섰다.

Table with 2 columns: Item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원·달러 환율) and Value (1,794.91, 472.88, 2.89%, 1,142.60원).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Department Store (롯데제이티비) featuring travel packages, hotel deals, and various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 1577-6511.